

광주·전남중기청 '친절 기관' 거듭난다

중앙부처 최초 민간기업과 서비스 협약

금호고속·신세계백화점 사례 벤치마킹

광주·전남지방중소기업청이 중앙부처 최초로, 금호고속 등 민간 기업과 '서비스 업무협약'(MOU)을 맺는다. 고객 서비스 우수기업과 연계해 중소기업인들에게 '최고 품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취지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은 20일 금호고속(주), 광주도시철도공사, (주)광주신세계 등 3개 민간 기업과 21일 '고객감동 서비스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밝혔다.

협약식에는 이의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과 김성산 금호고속 대표이사, 이호준 광주도시철도공사 사장, 김종석 광주신세계 관리사가 참석하며 고객 대응능력 향상과 만족도 개선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협약서를 교환할 예정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고객만족 서비스 제고를 위해 공동으로 노력 ▲친절교육 등 직원 자질 함양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 ▲각 기관의 전문성과

장점을 살려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키는데 적극 협력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정보공유와 서비스 모니터링 실시 등이다.

광주·전남중소기업청은 2년 전부터 중소기업인을 '고객님'으로 호칭하는 등 민간기업과 동등한 서비스 제공을 하기 위해 노력하며 이번 협약을 통해 친절 우수기업의 '친절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다른 기관 및 기업에 전파하기로 했다.

이의준 광주·전남중소기업청장은 "고객만족 실현을 위해서는 친절이 가장 큰 자본"이라며 "친절기술을 배워 현실에 적용하는 한편, 이번 MOU를 계기로 지역사회에서도 친절운동이 펼쳐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입력기자 exian@kwangju.co.kr

수도권 마케팅 전진기지 '비즈니스 라운지'

3개월 이용실적 45회...정원박람회·F1 흥보도

전남도가 서울 용산역 4층에 설치한 광주·전남 비즈니스라운지는 전남 중소기업 해외 마케팅과 수도권 투자 유치 및 판로 확보에 힘써노릇을 하고 있다.

광주·전남 비즈니스라운지는 지난 5월 서울 등 수도권과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지방 기업의 한계를 극복하고 바이어 상담 등 투자유치와 업

계 동향 등 각종 정보수집을 돋우기 위해 광주시와 전남도의 재정 지원으로 설치한 사무소다.

20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 3개월간 전남지역 기업의 회의실 이용실적은 45차례에 이른다. 기업 관계자, 공무원, 산학 연구기관 관계자 등 300여명이 지역 기업의 수도권 공략 전진기지로 활용했다.

비즈니스라운지는 또 친환경 가공식품 등 지역 우수 제품의 실물을 전시해 구매를 희망하는 업체와 직접연결시켜주는 창구역할도 하고 있다. 전남도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다도해비경, 보성 녹차밭, 순천만정원박람회, F1 등 차별화된 관광자원도 홍보하고 있다.

정순주 전남도 경제과학국장은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도비를 들여 교통 요충지인 서울 용산역에 라운지를 설치한 것은 지역 중소기업의 친

/장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소외이웃의 아픔 함께 합니다"

광주농협, 임직원 모금 1004만원 공동모금회 기탁

농협 광주지역본부(본부장 박태식)와 사랑의 전사(1004)운동(운영위원장 구희호)은 20일 본부 회의실에서 임직원이 모금한 19번째 1004만원을 광주사회복지공동모금회(사장

의 열매)에 기탁했다. 사랑의 1004운동은 광주관내 농협중앙회 및 지역농협 전 임직원이 연초 인사철에 영전 축하 꽃 경매대금 모금과 시상금, 급여기부, 폐기 판매

대금 등을 통해 1004만원이 모이며 사랑의 열매에 기부하는 농협 광주본부의 대표 사랑 나눔 운동이다. 지난 2001년부터 이번 19번째까지 1억 9000만원을 기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주택대출금리 '수협·우리銀' 최고

국민은행 3.53% 최저

지난달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가장 높게 매긴 곳은 수협은행과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 가운데 수협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식) 금리를 평균 4.35%와 4.21%로 받았다.

나머지 15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 중후반대다. 국민은행(3.53%), 한국씨티은행(3.57%), 농협은행·대구은행(3.62%)이 비교적 금리가 저렴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가장 높은 곳과 낮은 곳의 격차는 약 0.8%p다. 3억원을 빌릴 경우 연간 이자부담액이 240만원 차이가 나는 셈이다.

특히 일부 은행이 대출을 취급하지 않은 저신용자를 제외하고 신용도 1~3등급만 비교해도 우리은행은 금

리가 4.17%로 다른 은행에 견줘 월등히 높았다.

신용대출 금리는 1~3등급 기준으로 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이 6.21%로 가장 높고 신한은행이 4.17%로 가장 낮았다.

대출 가산금리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대체로 0.5~1.0%p 안팎이다. 은행들은 자체 기준금리에 가산금리를 덧붙여 대출금리를 정한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낮은 곳은 전북은행(0.37%p), 기업은행(0.45%p), 국민은행(0.50%p) 순이다.

수협은행(1.27%p), 외환은행(1.16%p), SC은행(1.05%p), 제주은행(1.00p)은 가산금리가 1%p를 넘었다.

신용대출 가산금리는 1~3등급 기준으로 농협은행(1.57%p)과 부산은행(1.58%)이 낮고 SC은행(3.52%p)과 씨티은행(2.80%p)이 높은 편이었다.

/연합뉴스

'상장 전문가 교육'

한국거래소·광주상의

9월 3일~6일 DJ센터

한국거래소는 광주상공회의소와 공동으로 오는 9월 3일부터 6일까지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광주와 호남 지역의 비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상장전문가 교육'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상장전문가 교육은 상장을 준비하는 기업의 상장 준비에 따른 시간과 비용을 덜어주고 상장 의사결정을 제때 할 수 있도록 관련 정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특화된 무상 교육 프로그램이다.

2010년 12월부터 매년 비상장기업의 실무자를 대상으로 연 6회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510명이 교육을 이수하는 등 비상장 중소·벤처기업으로부터 큰 호응을 받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연중무휴' 光銀 상무비즈니스센터

설·추석에만 휴무

평일 9시까지 심야영업

광주에도 은행 업무는 '월요일~금요일 오전 9시~오후 4시'라는 상식을 깬 점포가 있다.

시중은행들이 수익성 악화로 인해 '주말영업', '심야영업' 등 점포 운영 다양화를 통해 생존경쟁에 돌입한 가운데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주말·심야영업'을 하고 있는 '광주은행 상무비즈니스센터'가 재조명되고 있다.

상무비즈니스센터는 지난 2007년 3월 오픈, 은행업무는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9시~오후 4시까지라는 상식을 깬 것은 물론 공휴일은 휴무라는 고정관념을 깨고 주말에도 영업을 하고 있다.

상무비즈니스센터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9시~오후 9시까지이며, 주말인 토·일요일에는 오전 9시~오후 7시까지다. 특히 연중 설날 및 추석 당일 이를 제외하고는 연중무휴 영업을 통해 바쁜 직장생활로 은행 업무시간을 놓치기 일쑤인 직장인들과 맞벌이 부부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평일 은행 마감시간인 오후 4시 이후와 주말 상무비즈니스센터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주로 각종 사고 신고 업무, 대출 신규 연장 및 서류 작성 등 시간이 소요되는 은행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찾고 있다.

박도(32)씨는 "직장에 다니면서 대출 서류 연장 등 시간이 제법 소요되는 은행업무를 보기 어려운데 주말에 은행이 문을 열어 직장 눈치 보지 않고 편하게 대출 업무를



처리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인근 자영업자들에게도 아간 및 주말에 금융 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자영업자들은 주말 매출액 입금은 물론 아간이나 주말에 거스름돈으로 지급할 현금 확보를 위해 타 지역에서도 찾아온 정도다.

문병용 광주은행 채널전략팀 장은 "상무비즈니스센터는 지난 2007년부터 야간 및 주말 운영으로 고객이 편리한 시간에 다양한 맞춤 금융 서비스를 제공해 큰 사랑을 받고 있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고객 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www.krs.co.kr

Your dependable class partner

KR은 미래해양시대를 개척해 나가는 글로벌리더인 당신께
최고의 기술서비스를 제공하는 믿음직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주택대출금리 '수협·우리銀' 최고

국민은행 3.53% 최저

지난달 은행권에서 주택담보대출금리를 가장 높게 매긴 곳은 수협은행과 우리은행으로 나타났다.

20일 은행연합회에 따르면 국내 17개 은행 가운데 수협은행과 우리은행은 지난달 주택담보대출(분할상환식) 금리를 평균 4.35%와 4.21%로 받았다.

나머지 15개 은행의 주택담보대출금리는 3% 중후반대다. 국민은행(3.53%), 한국씨티은행(3.57%), 농협은행·대구은행(3.62%)이 비교적 금리가 저렴했다.

주택담보대출 평균 가산금리는 낮은 곳은 전북은행(0.37%p), 기업은행(0.45%p), 국민은행(0.50%p) 순이다.

수협은행(1.27%p), 외환은행(1.16%p), SC은행(1.05%p), 제주은행(1.00p)은 가산금리가 1%p를 넘었다.

신용대출 가산금리는 1~3등급 기준으로 농협은행(1.57%p)과 부산은행(1.58%)이 낮고 SC은행(3.52%p)과 씨티은행(2.80%p)이 높은 편이었다.

주요 업무

- 선박검사
- 기자재검사
- ISO/ISM/ISPS 심사
- 선박 및 기자재 관련 도면심사
- 해군항정 안전도 검사
- 산업설비 및 기기안전도 검사
- 신재생에너지 환경 및 제3자 검사

부산광역시 강서구 명지오션시티9로 36 (사)한국선급, 우편번호: 618-814